



뷰티테크 혁신 돌풍 16개월 만에 시총 6조

K뷰티 기술로 판 바꾸다

① 에이피알

K팝, K드라마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K뷰티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K뷰티 기업들이 자체 구축한 기술력이 단순 소비와 유행을 넘어서는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K뷰티의 최신 트렌드를 세 차례에 걸쳐서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이 비상장 스타트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기업 입지를 높인 데 이어, 국내 대표 뷰티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10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증권시장에서 에이피알은 시가총액으로 LG생활건강을 앞지르며 현재 1위 뷰티 기업 아모레퍼시픽 뒤를 빠르게 쫓고 있다. 이번 기록은 에이피알이

1분기 매출 79%, 영업이익 97% ↑
K뷰티 기업 LG생활건강 앞질러
해외 매출 비중 55%, 글로벌 확장

뷰티 디바이스 ‘에이지알’ 주력
‘스마트 홈 케어’ 구조 확립 박차

지난해 2월 상장한 후 1년 4개월 만의 성과다.

지난달 23일 에이피알 시가총액은 5조3718억원으로 처음, LG생활건강 시가총액 5조3336억원을 넘어섰다. 이달 9일 기준 에이피알 시가총액은 6조2126억원으로 아모레퍼시픽(7조8790억원)을 겨냥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2024년 2월 상장했고, 당시 공모가 기준으로 1조8960억원이



에이지알 신제품 ‘부스터 진동 클렌저’

/에이피알

었던 시가총액은 3배 이상 증가했다.

매출에서도 외형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7228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대비 38%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1227억원, 순이익은 1076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8%, 32% 확대됐다.

에이피알의 올해 연간 매출 목표치는 1조원이다. 이미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올렸다. 매출은 26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급증했고, 영업이익은 5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폭발했다.

에이피알 전체 매출은 지난해 기준, 국내 사업 45%, 해외 사업 55%로 구성됐다. 지난해 처음으로 해외 사업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에이피알은 미국 22%, 중화권 14%, 기타 12%, 일본 7% 등 해외 전역으로 진출해 있다.

이처럼 ‘K뷰티’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에이피알의 주력 브랜드는 ‘에이지알’이다. 에이지알은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로, K뷰티 영역을 기존 화장품에서 뷰티테크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에이피알은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가능한 전문적인 피부 관리를 집에서도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홈 뷰티’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혁신적인 뷰티테크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은 물론 대중성까지 갖춘 에이지알 제품군은 부스터 프로, 울트라 튠 40.68, 하이 포커스 샷 등으로 지속 확장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신제품으로 ‘부스터 진동 클렌저’, ‘부스터 프로 미니 플러스’ 등을 내놓았다. 부스터 진동 클렌저는 세안 단계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약 3만9000회(5단계 3분 사용 기준)에 달하는 미세 진동이 피부 위생을 돕는다. 인체적용시험에서 해당 제품은 1회 사용만으로도 손세안 대비 약 133% 높은 메이크업 세정력을 보였다.

부스터 프로 미니 플러스는 기존 부스터 프로 미니를 재단장한 것으로 이번 신제품인 부스터 진동 클렌저와 결합해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에이피알은 화장품 사업에서도 속도를 낸다. 올해 1분기 화장품 매출만 전년 동기 대비 152% 늘어나 1650억이다. 에이피알만의 뷰티테크를 집약한 뷰티 디바이스 신제품 출시를 이어가는 동시에, 화장품, 뷰티 디바이스, 모바일 앱 등으로 연동되는 ‘스마트 홈 케어’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이철민 현대차 국내마케팅실 상무가 지난 9일 경기 의왕시 ‘N 아카이브’에서 아이오닉 6 N을 소개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고성능 전동화 ‘아이오닉 6 N’ 세계 첫 공개

현대 N 최고세단 타임 EV 모델
트랙·일상에서도 즐거운 주행
올해 4분기 국내 출시할 예정

“트랙은 물론 일상에서도 즐거운 주행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철민 현대자동차 국내마케팅실 상무는 지난 9일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N 아카이브’에서 아이오닉 6 N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대 N 아카이브는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에 사용한 현대차 N 브랜드 차량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수장고 시설이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6 N의 출시를 통해 고성능 전동화 모델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이오닉 6 N은 모터스포츠와 움직이는 연구소라는 뜻의 ‘몰링랩’에서 얻

은 차량 데이터, 현대차의 첨단 전동화 기술이 결합돼 주행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차량으로 트랙 주행과 일상 주행 모두에서 고객을 만족시킬 현대 N의 두 번째 고성능 전동화 모델이다.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N(이하 현대 N)은 고성능 전동화 모델을 통해 즐거운 주행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브랜드 3대 성능 철학인 ‘코너링 악동(Corner Rascal)’, ‘레이스트랙 주행능력(Racetrack Capability)’, ‘일상의 스포츠카(Everyday Sports Car)’를 기반으로 아이오닉 6 N을 개발했다.

이 상무는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은 N 브랜드가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완성됐다”며 “아이오닉 6 N은 현대 N 최고 세단 타임의 고성능 EV

모델로 올해 4분기 국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이오닉 6 N은 고성능 사륜구동 시스템과 84.0kWh의 고출력 배터리를 바탕으로 ‘N 그린 부스트’ 사용 기준 전·후륜 모터 합산 478kW(650PS)의 최고 출력과 770Nm(78.5kgf·m)의 최대 토크를 갖췄다. 이를 통해 노면 상태에 따라 성능 제어를 최적화하는 ‘N 런치컨트롤’ 사용 기준 3.2초 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할 수 있는 폭발적인 동력성능을 확보했다.

아이오닉 N 5의 제로백(3.4초)을 넘어선 수치다.

아이오닉 6 N은 가상 기어 단수비율을 세밀화한 N e-스위프트가 탑재돼 끊임 없는 가속과 다이내믹한 주행이 가능하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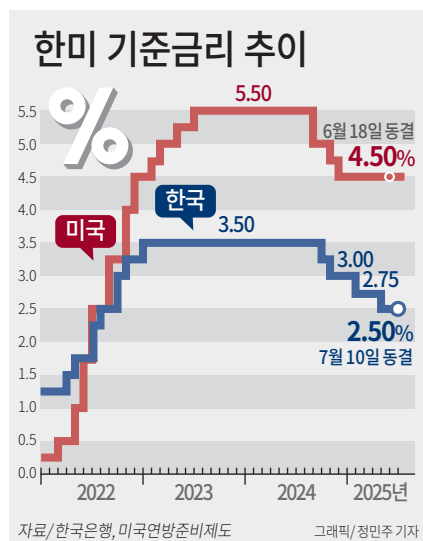
집값 상승, 가계빚 우려… 기준금리 ‘동결’

한은, 금리 연 2.50%로 유지
내수부진 우려는 더 커질 듯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연 2.50%)를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연 3.50%까지 올렸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과 5월 네 차례에 걸쳐 금리를 1.00포인트(p) 인하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기준금리 결정에는 서울 및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 증가→집값 상승→가계부채 증가가 이어진 영향이 컸다. 지난 2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으로 늘어난 서울시 주택 매매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부동산 상승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6월까지 지



속됐다.

집값도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5월 기준 99.91로 전기 대비 0.03% 하락한 반면 서울은

100.88로 같은 기간 0.54%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1월 5000억원→2월 3조2000억원→3월 1조4000억원→4월 4조8000억원→5월 5조2000억원→6월 6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매매 후 1~2개월 시차를 두고 증가한다. 2월부터 증가한 주택매매가 6월 가계부채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다”며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금리 결정으로 내수(소비·투자)부진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전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대통령실, 해병특검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할 예정”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취임… “해수부 부산 이전 반드시 될 것”
/사진 뉴스스

▲與 “국힘 ‘정치보복’ 프레임 몰두… 특검 수사 호도하면 안돼”
▲국힘 “민주, 위헌정당 해산 들먹여… 협치 말하면서 야당 말살”

▲국정위, 22일 청소년 타운홀미팅… “55인 국정기획위원 모집”
▲우 의장 “尹 재구속, 사필귀정… 재판 엄정히 진행되길 바라”